

AGING ISSUE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브리프

Vol. **02**
2025 S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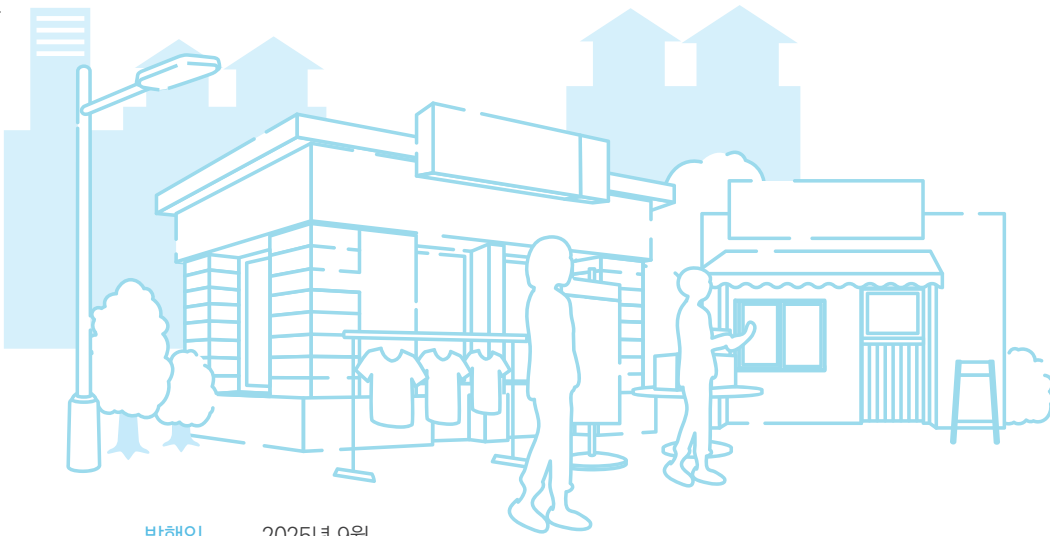


다름을 이해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Vol. **02**
2025 SEP

AGING ISSUE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브리프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인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장 박정숙
발행처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제작부서 정책연구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홈페이지 www.inlife.or.kr



CONTENTS



연구 성과 공유

04 「인천시 세대 간 증진 방안 연구: 50+세대를 중심으로」

- 연구자 한지수 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 작성자 김제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 개요
- 연구 결과
- 정책제언

이슈로 보는 세상

08 세대 간 갈등과 해결 방안

- 김수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01

인천시 세대 간 증진 방안 연구 - 50+세대를 중심으로 -

연구자 한지수 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작성자 김제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2022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가 낮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 노년층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50+세대(50~64세)가 세대 간 교류의 핵심 축이자 세대 간 연결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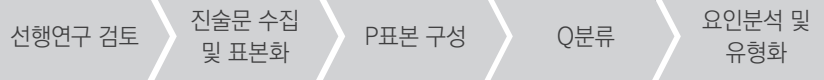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50+세대와 청장년세대(25~49세) 간 상호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 세대 간 상호 인식 유형 분석(Q방법론 활용)
- 인식에 기반한 세대 간 이해 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

3 연구 방법 및 절차

- 방법: Q방법론¹⁾
- 대상: 청장년세대(29명), 50+세대(30명)
- 절차:



1) Q방법론(Q Methodology) :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주관적인 의견이나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 쉽게 말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한 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 유형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생각 차이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인식 유형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구결과

1 청장년세대의 50+세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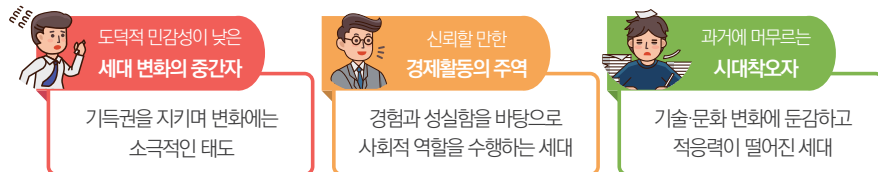
• 전반적 인식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또한, 나이 많은 세대를 공경하는 태도도 인정하였다. 반면, 지금의 50+세대가 예전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점이나 인간관계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긍정도 부정도 없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약하자면, 청장년세대는 50+세대를 존중하면서도 일부 변화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식 유형

청장년세대가 50+세대를 인식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세대 변화의 중간자' 유형은 50+세대가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인식한다. 두 번째, '신뢰할 만한 경제활동의 주역' 유형은 50+세대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근면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세대로 바라본다. 세 번째, '과거에 머무르는 시대착오자' 유형은 50+세대가 근면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약하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부족하며 변화에 둔감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은 청장년세대가 50+세대의 다양한 모습과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 50+세대의 청장년세대에 대한 인식

• 전반적 인식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성장했으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른 편은 아니며, 신문이나 TV 같은 전통 매체를 잘 믿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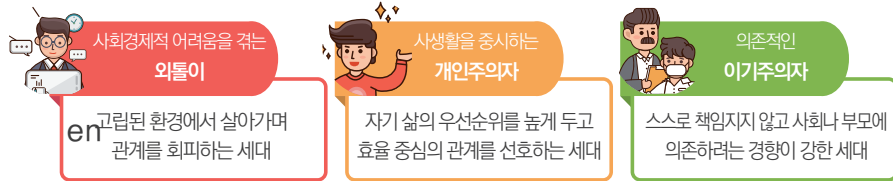
• 인식 유형

50+세대가 청장년세대를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 유형은 청장년세대가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며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한다고 본다. 두 번째, '사생활을 중시하

는 개인주의자' 유형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깊은 관계보다는 효율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세대로 인식한다.

세 번째, '의존적인 이기주의자' 유형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사회나 가족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강한 세대로 본다. 이는 50+세대가 청장년세대를 다소 단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정책적 제언

50+세대와 청장년세대는 모두 상대 세대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양 세대는 서로를 단편적인 이미지나 고정관념을 통해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 세대의 노력, 고충,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들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는 오해와 해석의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실제적인 교류 부족과 경험 기반의 이해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할 기반의 체험형 상호작용 프로그램 설계]

세대 간 인식 간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 기반의 체험형 상호작용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로의 삶을 직접 연기하며 경험하는 '역지사지 역할극'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50+세대는 청장년층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나 주거 불안 같은 현실적 문제를 연기하고,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겪는 디지털 고립이나 사회적 소외상황을 체험하는 식이다. 역할극 이후에는 공감 수준을 평가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피드백 구조를 내재화함으로써,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이해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의 삶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세대 간 고정관념을 해소하며 공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활용 이해 증진 활동]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대의 특징과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광고, 노래 가사,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감상하고, 이에 대한 각 세대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세대 간 존재하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특정 세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세대 간 인식의 폭을 넓히고, 공통된 사회 문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토론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참여 세대 간 소모임이나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세대 인식 교육 포함]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세대 인식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세대 간 인식에는 전형성과 편견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전형성과 편견은 세대 간 오해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대 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함으로써, 세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세대 이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입]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세대 특성을 왜곡하거나 극단화하는 언론 보도와 광고 표현에 대해서는 감시와 개선을 유도하고, 세대 간 이해를 저해하는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매체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기관이나 시민 모임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령친화 환경모니터링단은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감시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과 세대 갈등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 사례 등을 교육하고, 일상 속에서 왜곡된 정보나 표현을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제보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세대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세대 공존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02

세대 간 갈등과 해결 방안

김수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심화되는 세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한국리서치의 세대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가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세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55%에 달한다는 점이다.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5년 29.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같은 맥락에서 2024년 제5차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2024년 15.5%에서 2065년 26.9%로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세대 간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OECD 16개 초고령사회 국가군과 비교할 때, 한국은 2022년 기준 노년부양비 대비 국민부담률과 정부부채 비율의 합계가 평균 이상 수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참여 자격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세대별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상호 보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2025년 세대인식조사에 따르면,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가 지목된다. 윗 세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41%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8-29세는 57%, 30대는 55%가 윗세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젊은층과 고령층 간의 갈등 인식에도 차이가 뚜렷하다. 18-29세에서는 48%, 30대에서는 44%가 '나이 어린 세대가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32%가 '나이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본다'고 답해 대조적이었다.



(사진=서경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림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5_0002970864

2024년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기획사업 '인생투어 리버스 멘토링' 사진

공공과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프로그램을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사례로 들 수 있다. 2024년 서경대학교의 '인생투어(리버스 멘토링)' 사업은 청년세대가 멘토가 되어 중장년세대와 함께 일일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18명의 중장년 멘티와 4명의 청년 멘토가 6-7회차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24년 7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수평적 소통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직급과 세대를 넘어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세대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2018년부터 전국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선배시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이후부터는 전국 복지관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 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방적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출처: 브라운 마이 라이프 <https://blog.naver.com/yugacrewofficial/223446924878>

독일의 다세대 하우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다세대센터를 들 수 있다. 다세대센터는 세대 갈등 해결과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모두가 한 지붕 아래'라는 취지의 다세대센터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세대를 불문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상호 돌봄이 가능하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일상적 접촉'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2024년 사례들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세대 간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2024년 세대통합 프로그램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급속도로 부정적으로 변하기에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적절한 시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이전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성인이 되기 전, 다양한 세대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성공사례들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 전담 조직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점진적 제도 개선, 체계적 디지털 교육과 멘토링, 지속적 소통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세대가 가진 고유한 경험과 지혜, 역량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